3월 3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3.12	3.5	전주대비(%)	전년말 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168.69	1,168.47	↑ 0.02	↑ 5.87	659.21 '20/03/24	1,194.20 '21/01/15
인니	자카르타종합	6,258.75	6,241.80	↑ 0.27	↑ 4.68	3,937.63 '20/03/24	6,435.21 '21/01/13
인도	SENSEX	50,405.32	49,099.99	↑ 2.66	↑ 5.56	25,981.24 '20/03/23	52,154.13 '21/02/15
중국	상해종합	3,501.99	3,509.08	↓ -0.20	↑ 0.83	2,660.17 '20/03/23	3,696.17 '21/02/19
	심천종합	2,298.60	2,293.69	↑ 0.21	↓ -1.32	1,631.88 '20/03/23	2,468.66 '21/02/19
홍콩	H	11,292.22	11,247.21	↑ 0.40	↑ 5.16	8,559.64 '20/03/19	12,228.63 '21/02/17
	항셍	29,098.29	28,980.21	↑ 0.41	↑ 6.86	21,696.13 '20/03/23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026.26	3,012.95	↑ 0.44	↑ 5.32	1,457.64 '20/03/19	3,208.99 '21/01/25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3.12	3.5	전주대비(bp)	전년말 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40	2.39	↑ 0.30	↓ -18.30	2.15 '20/03/09	3.65 '20/04/01
인도네시아	6.69	6.61	↑ 7.90	↑ 80.20	5.89 '20/12/30	8.38 '20/03/24
인도	6.23	6.23	↓ -0.30	↑ 36.50	5.75 '20/05/28	6.50 '20/04/13
중국	3.25	3.28	↓ -3.00	↑ 10.30	2.48 '20/04/08	3.36 '20/11/19
한국	2.00	1.97	↑ 2.50	↑ 27.30	1.26 '20/03/09	2.00 '21/03/05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3.12	3.5	전주대비(%)	전년말 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3,035.00	23,018.00	↑ 0.07	↓ -0.27	22,970.00 '21/02/08	23,637.00 '20/03/30
달러-루피아 (IDR)	14,300.00	14,235.00	↑ 0.46	↑ 1.78	13,878.00 '20/06/05	16,575.00 '20/03/23
달러-루피 (INR)	73.03	73.47	↓ -0.60	↓ -0.06	72.33 '21/02/24	76.87 '20/04/16
달러-위안 (CNY)	6.50	6.47	↑ 0.36	↓ -0.46	6.43 '21/01/29	7.17 '20/05/27
달러-원 (KRW)	1,125.68	1,123.53	↑ 0.19	↑ 3.61	1,081.81 '20/12/04	1,285.73 '20/03/19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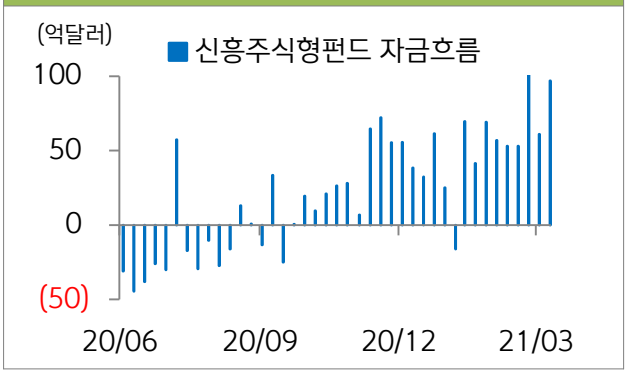
❖ 美 금리 상승으로 인해 신흥국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 이탈. 3월 FOMC 연준의 선택이 중요

- 글로벌 신흥국 주식형 펀드에는 9주 연속 자금이 유입되었지만, 신흥국 채권형 펀드는 지난주(3/4~3/10) 자금이 큰 폭으로 유출($32억 유출)이 나타났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미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이에 따라 경제 정상화에 나서면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9%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국제유가, 농산물 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면서 미국 채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 신흥국 채권형 펀드에서의 자금 이탈을 촉발하고 있는 상황임.

- **인도네시아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영향을 받고 있음. 외국인들의 연초대비 인도네시아 국채 누적 순매수 금액은 2월말부터 순매도로 돌아섰으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 이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대규모 순매입을 진행한 것과 달리 외국인들은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의 인도네시아 국채보유 비중은 40%대에서 23.5% 수준까지 하락하였음. **BBB등급 국가 채권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인도네시아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긴 하지만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요국 채권금리를 밀어 올리는 상황에서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요 심리가 크게 살아나긴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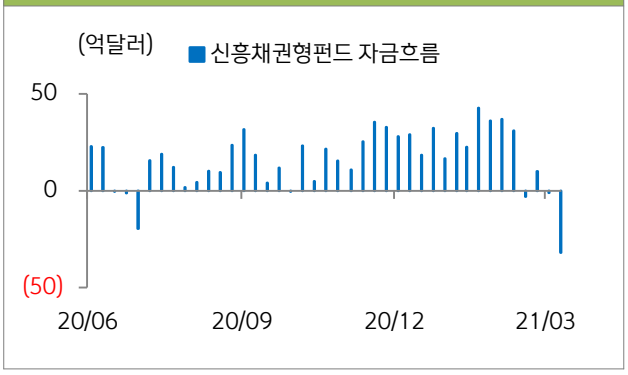
- 이번주 3/16~3/17에 미국의 FOMC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파월 의장과 주요 연준 위원들은 현재의 금리 상승에 대해서 경기 회복을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어 금리 상승세를 멈추고 금리 안정을 위한 조치를 기대하는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음. **미국의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고유가와 고금리에 취약한 신흥국 약한 고리에서부터 환율과 금리에 높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신흥국 주식형 펀드 자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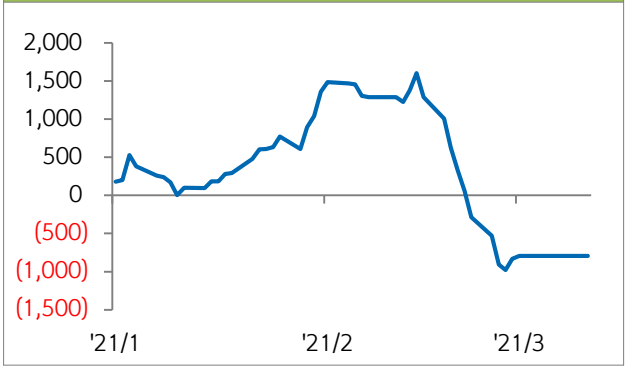
자료 : EPFR

신흥국 채권형 펀드 자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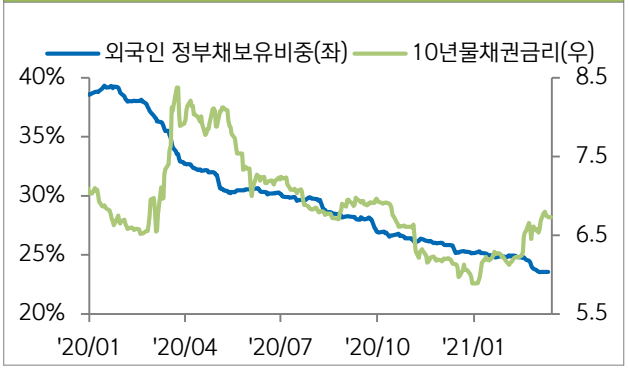
자료 : EPFR

외국인 인니국채 누적 순매수 추이(연초이후)



자료 : Bloomberg

외국인의 인니 국채 보유비중 및 채권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주요 뉴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SPAC 허용 준비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는 자국 내 유니콘 기업들이 상장 조건을 맞추지 못해 국내가 아닌 글로벌 증시로 상장을 준비함에 따라 당장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미래 성장가능성에 기반한 상장이 가능한 SPAC을 통한 우회 상장 방식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

-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는 3개의 인도네시아 기술 유니콘 기업들이 해외에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에 올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서 인도네시아 국내로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로 하였음. 증권거래소는 7월까지 특수목적인수법인(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상장 절차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통과시킬 것이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술 스타트업 기업들이 국내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음. 스타트업 기업들은 전통 기업들과 다른 형태를 띄고 있으며 상장을 위해서 기존과 다른 절차를 밟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임. 핀테크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요 대상으로 여겨짐
- SPAC은 다른 기업의 취득이라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상장(IPO)를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특수목적법인임. SPAC 자체로는 기능적인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보다 관련한 상장 조항 충족을 빠르게 만족 시키고 이후 실제 상장시킬 회사를 취득함으로써 상장 절차를 빠르게 만들어 줄 수 있음. 스타트업 기업들은 손실을 보고 있긴 하지만 높은 기업가치를 부여 받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대 테크 스타트업들이 상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SPAC 도입을 위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임.
- 거래소 차원에서도 빈약한 자본시장을 강화시키고 GDP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46.8% 수준으로 아세안 6개국 중에 가장 작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기술 스타트업들의 상장을 유인하려는 의지가 있음. 이러한 거래소의 결정은 많은 거대 스타트업(유니콘)들이 상장을 희망하고 있는 시기에 적절히 발표되고 있음. 지난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유니콘 기업들의 자금 조달 규모는 상반기에만 30억 달러에 달했고, 2019년에는 51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조사된 바 있음.
- 인도네시아는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유니콘 기업이 5개가 있음. 승차공유 기업 Gojek, 여행 예약 기업 Traveloka, 전자상거래 기업 Bukalapak과 Tokopedia, 그리고 전자지갑 업체 OVO이지만 이들 중에 한 기업도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진 않음.

(출처 : Antara News)

-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들에 대해서 Class를 나누는 방식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이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일반 대중 주식보다 더 의결권을 많이 가져가도록 하여 상장에 따른 효과는 보면서도 의결권은 크게 희석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차등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술 스타트업 기업들의 사업 개발은 지속하면서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Bukalapak은 최근에 SPAC 방식을 통해서 미국에 상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상장 시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음.
- 지난해에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Tokopedia는 모건스탠리와 Citi를 주간사로하여 SPAC을 통한 상장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Bridgetown Holdings Ltd와의 합병을 통해서 상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딜을 결정하진 않았음. 이 외에도 Tokopedia는 Gojek과의 합병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음. 이들 기업이 합병을 한다면 20억 달러 규모가 되는 것으로써 이 기업이 상장을 할 경우 인도네시아 기업 중 최대 규모의 IPO가 됨.
- 한편 Travekoka는 IPO나 SPAC 가운데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임. 기업가치는 50~60억 달러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장을 인도네시아에 할지 미국에 할 지도 아직까지 저울질을 하고 있음. Traveloka는 백신 접종이 충분히 진행되고 글로벌 여행 산업이 다시 궤도에 오르는 시접 즈음을 상장 시기로 검토하고 있음. Traveloka는 SPAC의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SPAC 방식의 상장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점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SPAC방식으로 미국에서는 2021년 첫 2개월 동안에만 600억 달러 규모의 상장이 이뤄졌으며, 벌써 2020년 대비 70% 수준의 상장 규모가 달성되었다고 Reuter는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SPAC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SPAC 붐만큼은 못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SPAC 상장을 통한 투자에 대해 익숙하지 않는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출처 : The Star)

인도네시아 정부, 재생에너지 전력 관련 새 규정 초안 작성 완료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에 비해 여전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전력인프라의 증설을 도모하기 위해 전력 공급가격 체계를 단순화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새 규정 초안이 작성중이라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하였음 태양광 및 수력 발전 등을 지속 증설 계획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생 에너지 원천에서 얻어지는 전력의 가격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을 담는 규정 초안을 완료하고 있다고 에너지부가 발표하였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원천으로부터 전력을 창출하는 비중을 전체의 2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보다 9%를 높이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진행 속도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 관계 당국에서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부터의 전력 증설 규모를 2,500MW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9~2025년 기간 목표인 10,000MW 대비 부진한 진도율임.
- 이번 규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끌어당기기 위한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음. 특정 발전소에 대해서는 Feed-in 요율을 적용하여서 PLN과 별도의 가격 네고 없이 공급 가격을 정하게 되는 가격체계 단순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수력, 태양광, 지열 발전 등을 통해서 400 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잠재력의 2.5% 수준에 불과함. 에너지부에서는 태양광의 설치가 가장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부 칼리만탄 지방과 같이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곳에서는 수력을 증설할 계획임.

(출처 : Economic Times)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상호 투자조약 발동

❖ **요약 및 시사점**

'18년부터 논의되어 온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상호 투자조약이 발동되었음. 해당 조약을 통해 양국간에는 투자 관련 세금 부담 완화 및 외국인 투자자 차별 완화 등이 적용되어 양국의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음.

- 인도네시아-싱가포르간 상호 투자 조약이 3/9에 이뤄진 화상회의를 통해 효력이 발동되었음. 해당 조약은 투자자 및 투자 건들에 대한 처리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국이 상호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조치를 담고 있음. 이번 조약은 2018년에 조코위 대통령과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간에 협의된 내용을 양국 외교부가 최종 절차를 진행한 것임.
- 이번 협약의 발동이 양국간의 오랜 경제 협력에 더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진행하고,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이 싱가포르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를 진행하고 신뢰를 높이는 큰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싱가포르는 2014년 이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서 지속적으로 최대 투자 국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반대로 싱가포르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순위도 Top 10에 들어가고 있음.
- 이번 조약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양국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양국의 상호간 투자는 향후 5년간 18~22%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2030년까지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임.
- 이번 조약의 발동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조항이나 불법적인 조치 등으로부터 양국의 투자자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타국에 비해 우호적인 투자기회를 가지게 됨 또한 지난해에 협정이 체결된 이중 과세 방지 조약의 업데이트 내용 등도 완료하였음. 이번 조약 발동으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양국의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도 낮추게 되었음. 또한 양국은 디지털 경제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국 기술 기업간의 투자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출처 : Straits Times)

수입 대체 효과를 위한 연구개발이 경제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수입 대체품의 개발 및 수출품목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이를 위한 R&D 투자 지원 및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있음.

- 수입 대체제를 만들어 내기 위한 혁신적인 연구활동과 제품 개발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과학기술부 장관이 말하였음.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수입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생산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임.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경제는 수입 물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로 인해서 무역 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 장관은 국내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나아가 수출할 수 있는 제품까지 만들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국내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수입산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발전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 발전은 R&D 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자자는 것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음. 그러면서 수입산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더 개선되고 양품을 만들어 내는 것까지도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 한편 경제 금융 개발 연구소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재 물품의 수입을 줄이는 것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발표하였음. 시계, 신발, 전자제품과 같은 비필수 소비재 제품들에 대한 수입은 줄이고 자본재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수입은 지속해가야한다는 방향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에서 처리되는 원자재의 수입에 대해서 수입 우선순위를 두고 선별적으로 수입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경제 금융 연구소는 무역수지 증진을 위해서 수출 기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발표하였음. 투자를 유치하여서 제조업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공급망을 갖추어서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이러한 투자는 수출을 늘리는 것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음. 인도네시아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이 높아질 때 수출 상품의 다양화와 비전통적인 수출 시장으로의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았음. 이를 위해 수출 가공 특별지구 및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지정 개발을 통한 지원을 요청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코로나19로 인해 인도네시아 실업률 급등

KEMENTERIAN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피해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실업률은 7%에 육박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숙련, 저학력 노동자들이 많아 고용 위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인적 자원의 질적 개선과 생산성 확대를 위한 지원조치를 위해 2021년에도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의 실업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실업자 숫자는 970만명으로 증가하여 실업률이 1.84%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서 실업률은 7%에 근접하게 되었음. 과거 5년간 실업률은 2020년 2월의 4.99%까지 하락하였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동안의 실업률 개선을 모두 잃게 된 것임.
- 2020년 8월 기준으로 중부 자바 지역의 실업자 수만 전년대비 39.6만명 증가한 121만명을 기록하였음. 중부 자바지역의 실업률은 전년대비 2.04%p 증가하였음.
- 노동부는 이에 따라서 인적 자원 부문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적 자원의 질적 개선 및 경쟁력, 생산성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음. 고용된 사람들의 57% 가량이 고등학교 미만의 학력을 지니고 있으며, 낮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고용 위기에 취약하다는 판단에서임.

(출처 : Antara News)

노동 집약 사업을 통해 3월초까지 110,544명의 고용 발생

❖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감소한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집약적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음. 대규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직접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임금 현금 지급을 통해 구매력을 유지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행정주택부는 올해 3월초까지 진행된 현금 노동집약 프로그램(PKT)을 통해서 110,544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정부가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사람들의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한 이번 사업은 자금을 시골지역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였고 물리적/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충실히 지키면서 진행하였다고 부처에서는 말하였음.
- 장관은 기술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단순 노동이나 소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노동 집약 인프라 사업이 실행 중이라고 말하였음. 이러한 노동 공급을 통해 노동 수요를 유지하고 임금 지급을 통해 구매력을 늘려주는 사업을 지속한다고 하였음. 올해 행정주택부에서는 사업을 위해 123만명의 고용을 만들어내는데 23.24조 루피아를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두었음. 올해 3월초까지 110,544명을 고용하는 것에 1.39조 루피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률은 6% 정도였음.
- 이번 노동 집약 사업으로 진행된 주요 개발 사업들은 지방 도서간만 지역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소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들로, 소규모 개간사업, 도로 보수 사업 및 보조금을 받는 주택의 건설 등과 같은 사업이며, 슬럼가 개선 작업 및 상하수도 개선 작업들도 포함되었음.
- 치수 개선 인프라 사업(SDA)와 관련해서는 7.15조 루피아 규모로 386,159명의 고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두었음. 이 사업을 통해서 34개 주의 모든 강주변 지역(BBWS/BWS) 지역의 치수 사업도 진행되는 것임.
- 도로 및 교량 건설 사업에는 273,603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6.69조의 예산이 배정되었음. 보조금을 받는 주택의 건설 사업을 통해서 190,130개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378,460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는 4.11조 루피아가 배정되어 있음.

(출처 : Antara News)

의회, 정부의 쌀 수입 계획 재고 촉구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국가 쌀 비축 재고를 높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쌀의 수입을 늘릴 계획이지만, 의회는 올해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국내 쌀 가격의 부진을 감안하여 수입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인도네시아 의회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결정한 100만톤 쌀 수입 계획에 대해서 국내 생산 쌀 가격에 하향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재고를 촉구하였음.
- 현재 쌀가격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 각 지역에서 수매하는 가격을 하회하고 있음. Blora지역 kg당 3,300 루피아, Kendal 지역 kg당 3,600 루피아, Ngawi 지역 kg당 3,400f루피아임. 무역부 장관령 제2020-24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kg당 4,200루피아 가격으로 수매가격으로 정하고 있음.
- 국가물류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Bulog는 현재 25,828톤의 상업재고와, 843,647톤의 정부 수매 재고를 포함하여 869,151톤의 재고를 가지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재고량을 최소 150만톤으로 맞추려고 한다고 발표하였음.
- 한편, 통계청은 1~4월 사이에 국가 쌀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46만톤에 비해 308만톤 증가한 1,454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1년의 생산량 증가를 감안할 때 국내 쌀 생상만으로도 국가가 원하는 재고량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수입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임.

(출처 : Antara News)